

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선배가 현지 경험과 노하우 나눈다

- 워킹홀리데이 경험 청년으로 구성된 멘토단 출범, 안전하고 유익한 워킹홀리데이 정보 제공
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3월 27일(금) 15시 한국국제교류재단(KF) 글로벌센터 세미나실에서 워킹홀리데이 서포터스 ‘워홀프렌즈 15기’ 발대식을 갖고,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.
 - ※ 워킹홀리데이란 협정 체결 국가* 간 청년(대체로 만 18~30세)들이 상대 국가에 체류하면서 관광, 취업,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하는 프로그램
 - *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, 캐나다, 일본 등 28개 국가/지역과 협정 체결
 - ※ 우리나라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4만 명* 수준으로 국가별로는 호주(약 1만6천 명), 캐나다(약 8천4백 명), 일본(약 7천4백 명) 등 順
 - * 협정 체결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건수 기준
 - ‘워홀프렌즈’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에 새롭게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본인의 경험과 체류했던 현지 정보를 공유하는 등 ‘멘토’ 역할을 하는 서포터스이다.
 - ‘워홀프렌즈’는 2012년부터 매년 운영되어 올해 15기를 맞이하며, 이번 15기에는 캐나다, 호주, 영국, 일본 등 9개 국가/지역에서 워킹홀리데이 참가 경험자 20명으로 구성되었다.
- ‘워홀프렌즈 15기’는 앞으로 SNS 및 다양한 온·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, 예비 참가자 대상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.

- 특히, 본인의 경험과 현지 정보를 카드뉴스·숏폼 영상 등 콘텐츠로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예비 참가자들에게 전수할 예정이다.
- 해당 콘텐츠는 인포센터홈페이지(which.mofa.go.kr), 네이버카페(cafe.naver.com/wohofriends), 유튜브(youtube.com/@whickorea), 인스타그램(instagram.com/whic.kr), 페이스북(facebook.com/whic.kr)에서 볼 수 있다.
-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'23.8월~'24.8월까지 체코에서 활동하였던 경험자 박지다 서포터스는 “저의 현지 경험이 예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게 성공적인 활동을 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”고 포부를 밝혔다.
- 재외동포청 변현정 동포지원제도과장은 발대식에서 “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유경험자인 워홀프렌즈가 생생한 경험과 정보를 청년들의 시각에서 전달하여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- 재외동포청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‘워홀프렌즈’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붙임 : 워홀프렌즈 15기 발대식 행사 사진 1부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	책임자	과 장 변현정 (032-585-3179)
		담당자	주무관 윤기호 (032-585-3184)